

라일락 향기가 있는 5월

박 일 순 멜라니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내가 Hospice 활동을 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었다. 그때, 장 유착 수술을 받고 깊은 아픔을 맛보았고, 회복 한다는 감사했었다.

그래서 하느님께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했고 그때 심정은 하느님께 빛을 갠고 싶었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88도로를 달리다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내려 황톳길을 걸어 가니 그 자리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에 사다리가 놓여 있어 그걸 타고 하염없이 올라가다 꿈에서 깨었다.

그뒤, 주일이 왔고 주보를 보니 여의도 성모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 교육을 받았고,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을 방문하지만 그중에 생각나는 일과 사람들이 있다.

40℃ 오르내리는 열로 인해 한 달씩 샴푸를 못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겨 드리면 개운해 하며 좋아하는 모습, 또 환자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하는데 갑자기 손목이 끊어질듯 아프고 혀가 어룩해 지던 일, 중환자실을 찾아가 몸을 닦아주며 대화하던 중, 피를 별척별척 토하던 일등등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다.

할 일이 있어 지금 죽을 수 없다는 분, 또 숙명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분들의 눈물을 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도하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

모두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가, 긴 시간을 함께 하였는지 아니면 한두번 만나더라도 이 세

상을 떠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 드리고 임종경과 묵주기도를 바치며 하느님 품으로 편히 보내드리고자 노력하는 이 작은 역할이 하느님 마음에 드실지...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를 드니 작년에 하느님 곁으로 떠난 홍혜O 비비안나님의 가족이시다. 사별 가족 돌봄으로 가끔씩 전화를 드리곤 한다.

이 환자분은 6개월 정도 돌봐드렸으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분이시다.

유방암으로 가신 분,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나와 비슷해서 일까, 유난이 정이 갔고 나눈 이야기도 많다.

처녀 때는 얼굴이 예뻐 빨간 구두를 신고 푹푹 걸으면 주위가 흰했다고 자랑해서 웃곤 했다.

인상도 좋으시고 신앙도 깊었으며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병이 깊었다하며 담담한 자세로 주님께서 오라시면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주님께 가는 길이니 너무 애달다 하지마세요”하며 친구와 친척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곤하였다.

아~ 이렇게 여유있게,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우리봉사자들에게는 “100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덕의 중용을 지키며 사랑실천을 한다”하며 천사라고 말을 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곤 했다.

시간이 흘러 비비안나의 병은 깊어져만 갔고 다리에 부종이 심했으며 진물이 흘렸고, 유방에서 뇌로 뼈로 전이되어 힘든 시간을 잘 견디어 내더니만 언

젠가 부터는 눈을 뜨고 있으며 사람을 몰라보았고, 가성훈수가 와서 헛소리를 하며 모든 사람들을 애태 왔다.

의사 선생님은 Hospice실로 이동하길 말했지만 유가족들은 운명을 집에서 맞이하여 주겠다고 과천 집으로 이송하였고, 나와 다른 봉사자 실비아는 그 택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큰방에 누워 있었고,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베베의 성가소리가 방안 가득 울려 퍼져있었다.

비비안나는 다문 입 사이로 뼈죽이 나온 썩은 피와 고름을 한입 물고선 거즈로 살짝 덮여 있었다.

우리는 거즈와 핀셋 가그린을 준비하게하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

“안녕하세요, 멜라니아와 실비아 왔어요, 이 아름다운 집, 항상 생활하시던 집에 오니 마음이 좋으시죠, 집으로 와서 우리도 따라 왔어요, 그간 함께 했던 비비안나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병자성사는 병원에서 신부님께 받았으니, 됐고 오늘 본당수녀님 연결해서 기도 받으시도록 연락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안을 닦아 드릴테니 협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아- 하라고 하니, 입이 조금 벌어졌고, 우리는 가글링을 축축히 적서 십여차례 오물을 닦아내었고 손마디만한 딱정이를 몇 개 꼬집어내었다.

또, 내 볼을 그의 입에 대어보기도 했다.

후끈한 입술 열이 내볼에 전달되었고, 비록 죽음을 기다리며 거즈로 덮어놓은 상태였지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을까?

무슨 의사표시인지, 억- 억 하는 소리를 내었고, 우리는 성모님 노래를 여러 곡 불러드렸다.

커다란 정원이 있는 주택 집엔 온갖 봄꽃들이 화려하게 꽃밭을 이루었고, 향긋한 라일락 향기가 부는 바람에 흩어져 내 몸과 마음을 감싸 안았다.

아~ 이 좋은 라일락 향기,

비비안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라일락 향기 때문에 행복했을까 —

긴- 골목길을 걸으며 그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편안하길 기도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하며, 또 부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

고개를 숙이고, 고뇌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슬픔과 함께 걸었다.

자매는 그 다음날 이 세상을 떠나갔다.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안락한 생활에 젖어 죽음은 멀리 있는 것, 나와는 별 상관없는 듯이 살고 있다.

하지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다.

F. 홀 뵈크가 지은 「연옥」에 한 문장엔 이런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충고, 가장 큰 지혜와 준비는 그대가 완전한 고해로써 준비를 갖추고,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처럼 처신하는 것” 이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 이제부터라도 빛 좋은 살구가 아니라 진실된 열매, 또 즐겁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나는 가끔씩 하늘을 우리러 속삭이는 버릇이 있다.

주님, 이 세상을 떠난 분들과

또, 내가 보고 싶고 나를 스쳐간 모든 영혼들이 주 평화 안에 영원히 쉬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동행

이흥선 안나

평화호스피스 행사부장

어느 따스한 이른 봄날...

정기모임이 막 끝날무렵 회장님께서 제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안나~ 이제 나하고 가정방문(호스피스)해보지 그래 응?”

이렇게 가정호스피스가 시작되었고 난 88세 김금순 할머니과 첫 만남을 가졌다.

첫 방문할 때, 뻔만 앙상히 남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쉽게 다가가지가 않았다.

회장님의 기도가 시작되고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가를 따라부르는 시늉을 하시고 쉽게 다가가지 못한 내게 할머니는 어색한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만감이 교차하며 웬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방문을 약속하고 나왔다.

이렇게 첫 방문을 한 우리의 만남.

우린 다시 만났다.

회장님께서 “김금순씨 세례 받으시고 하느님 나라에 갑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할머니께서는 “네!” 하고 조용히 대답하셨다. 곧바로 세례식이 진행되었고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하는 말씀.

“안나!”

“네”

“오늘부터 김금순(마리아) 할머니의 대모는 안나야~ 알겠지?”

전 가슴이 쿵쿵 요동을 쳤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웠죠. 어떻게 할머니의 대모가 될 수 있나? 보잘

것 없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 승낙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할머니께 어떻게 준비를 해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다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앙상하게 뻔만 남은 팔, 코가 말라 붙으셨고(임종을 앞둔때 나오는 현상) 앙상한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처음으로 느끼는 이 느낌...

차디찬 할머니의 자리가 왜이리 따스하게 느껴지는지... 메마른 코가 왜그리 귀엽게 느껴지는지... 왜그리 한 번 안겨보고 싶었던지...

이런 느낌이 있고 몇 일 뒤 마리아 할머니는 하느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500장이나 그리신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나를 감동시키고 제 마음속에 두고두고 따뜻한 사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셨던 할머니!

꽃을 좋아한 마리아 할머니는 저 하늘나라 아름다운 꽃의 궁전에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금 호스피스를 알게된 안나는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호스피스가 되겠노라고...